

金庸 무협소설에 나타난 武功의 상징적 의미와 서사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우강식**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서사에 미친 영향 |
| 2. 武功의 상징적 의미 | 1) 주제의식의 표현 |
| 1)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 | 2) 무공비급과 병기를 통한 서사 진행 |
| 2) 개성화한 무공 | 4. 나가는 말 |
| 3) 武學思想 | |

【초록】

본 연구는金庸의 무협소설을 중심으로 무협소설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武功의 상징적 의미와 서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金庸은 인물의 형상과 무공을 사용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통의 詩文과 철학 사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과 초식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과 초식은 비록 문자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추상적인 형상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예술적 감흥과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또金庸은 자신이 가공한 무공의 요지를 설명하며 無의 경지를 제시하였고, 수련방법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무공을 습득해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俠義精神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병기와 무공비급은 대체로 소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109971)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wookangsig@daum.net)

에 묘사된 다른 병기와 무공의 능력을 월등히 초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강호에 출현하게 되면 강호에는 자연스럽게 긴장과 갈등의 국면이 형성되게 되며, 소설의 서사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된다.

【키워드】金庸, 무협소설, 武功, 상징적 의미, 俠義精神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金庸의 무협소설을 중심으로 무협소설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武功의 상징적 의미와 서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협소설은 江湖의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俠義精神을 지닌 俠이 강호에 출현하고, 이 俠은 武功의 수단을 써 어려움에 부딪친 이웃을 구제하거나 혹은 강호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묘사한 문학 장르라 할 수 있다. 무협소설이 읽히는 이유 또한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독자들의 바람을 상징하는 俠의 출현,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俠이 무공의 수단을 써 강호에 正義를 실현하는 서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강호인들이 무공을 연마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다. 하나는 개인의 생존에 관한 것인데, 분쟁과 위협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강호라는 공간에서 강호인들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무공은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俠의 이상에 관한 것으로, 협객들은 鄭春元이 강호에서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인적인 무예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¹⁾ 것처럼 옳과 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강호에서 俠은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공은 필수 수단이 된다고 하겠다. 강호를 행보하는 俠은 비록 충만한 俠義精神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무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강호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분명 제약과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처럼 무공은 강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존 수단이며, 동시에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고 하겠고, “武”와 “俠”을 결합한 문학 장르인 무협소설은 俠의 완성, 곧 강호질서 구현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武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武와 俠을 중시하는 무협소설 장르의 특성을 두고 무협소설 창작 과정에서

1) 鄭春元, 『俠客史』, 上海文藝出版社, 1999, p.183.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古龍은 “무공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²⁾라고 하며 무공 묘사의 화려함보다 무공 자체가 지닌 실용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 梁羽生은 金庸의 무협소설에는 “武는 많지만, 俠은 적다”고 비평하면서, “무협소설에서 俠은 武보다 훨씬 중요한 것인데, 俠은 영혼이고, 武는 육신이며, 또 俠은 목적이고, 武는 俠을 달성하는 수단이다”³⁾라고 하며 俠이 중심이 된 묘사를 강조하였다. 金庸 또한 “무협소설 가운데 진정으로 俠士를 묘사한 작품은 사실 많지 않은데, 대다수 주인공의 행위는 주로 武이지 俠이 아니다”⁴⁾라며 武를 중심으로 묘사되는 장르의 전체적인 창작 경향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무협소설은 본래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해 창작된 문학작품이지 무술교본으로 창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俠의 行俠 수단인 무공의 창조와 묘사 또한 장르의 틀 안에서 어느 정도의 문학적 과장과 예술적인 가공은 용인될 수 있다고 하겠다. 또 주인공의 행위는 주로 武로 표현된다는 金庸의 언급처럼 무협소설에서 강호의 모순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俠의 행위, 곧 소설의 주제의식은 대부분 武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무협소설에서 무공만이 묘사되고 俠義精神이 묘사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무공이 단순한 俠의 行俠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俠과 더불어 서사를 이끌어가는 무협소설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무공에 관한 분석은 무협소설 장르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작업이라 하겠고,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했다.⁵⁾ 본 연구는 주

2) 武功是用來殺人的, 不是用來給人看的. 陳墨, 『金庸小說與中國文化』, 百花洲文藝出版社, 1995, p.190.

3) 在武俠小說中, 俠比武應該更爲重要. 俠是靈魂, 武是軀殼; 俠是目的, 武是達成俠的手段……武多俠少. 傅國湧, 『金庸傳』, 『金庸梁羽生合論』,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3, p.267.

4) 武俠小說中真正寫俠士的其實并不很多. 大多數主角的所作所爲, 主要是武而不是俠. 金庸, 『金庸作品集』(『飛狐外傳·後記』), 三聯書店, 1999, pp.723-724.

5) 金庸 무협소설의 무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陳平原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겠다. 그는 무협소설 서사 유형 연구서인 『千古文人俠客夢』에서 역대 무협소설의 서사구조와 유형에 관해 분석하였는데, 그는 본 연구서에 따로 장을(第五章) 두어 무협소설에서 俠의 주요 行俠 수단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여기서 대표적인 行俠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검과 俠의 관계에 대해서 상술하였다. 그는 무협소설에서 겨루기 기술의 묘사는 실제 겨루기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에서 허구의 미적 감각을 중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그 가운데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金庸은 문인화 과정을 거친 무공의 묘사를 통해 ‘검 가운데 문장이 있고(劍中有書), 검 가운데 시가 있는(劍中有詩)’ 예술적 경지를 표현했다고 하였다.(人民文學出版社, 1992.) 또 嚴家炎은 『金庸小說論稿』에서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묘사된 ‘武’의 의미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그는 무협소설에서 협사들이 俠을 행하고 정의를 펼치며 백성들을 재난에서 구제하는 이상을 실현할 때, 그들의 초월적이고 기이한 기예를 어떻게 펼치고 의지하는가에 관한 묘사가 바로 ‘武功’의 묘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金庸은 그의 무협소설에서

무공의 묘사를 학술적이고 예술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무공의 묘사를 인물의 성격묘사와 긴밀하게 연계하였다고 하였으며, 단순히 무공을 사용해 겨루는 것의 묘사에 그치지 않고 인물 심리상태의 변화 또한 무공과 더불어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다.(北京大學出版社, 1999.) 陳墨의 연구 또한 주목할 만한데, 그는 『金庸小說之武學』에서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묘사된 무공을 주요 인물들이 사용한 무공을 중심으로 해서 각기 무공과 예술, 무공과 학술, 그리고 무공을 익히는 것과 人才가 되는 것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百花洲文藝出版社, 1996.)

또 陳特는 「金庸武學工夫論」에서 金庸 무협소설의 핵심요소인 무공을 ‘武學工夫論’이란 개념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그는 논문에서 ‘儒學工夫論(郭靖), 道家工夫論(喬峰), 禪宗工夫論(令狐冲)’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武學工夫論은 그들이 강호에서 표현한 강호가치관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蘇州教育學院學報』, 第02期, 2018.04.) 張從容은 「武俠之“武”的文化淵源與審美意蘊」에서 중국의 무술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무협소설 창작에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 하였다. 무협소설 작가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무공의 세계를 연출하였다고 하였는데, 특히 金庸은 무공의 묘사를 빌어 철학적인 인생관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遼寧師範大學學報』, 第03期, 2007.05.) 劉會鳳은 俠이 무공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전통 교육 관념에 비추어 분석하였는데, 楊過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가 무공을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의 묘사를 통해 金庸의 무협소설에 표현된 仁愛와 배려하는 마음 등을 교육 관념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金庸武學的教育理念—淺析楊過的成長過程』, 『佳木斯教育學院學報』, 第04期, 2009.10.) 또 唐黎標는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무공은 俠이 강호에서 존재하고 생존하기 위한 필요수단인 동시에 작가는 이에 각종 철학적인 사상을 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무공을 배우는 자의 품덕인 武德을 무공의 묘사에 강조하고 있다고 하였다.(『金庸筆下的武學思想』, 『精武』, 第08期, 2006.08.) 李洪武는 金庸은 무협소설에서 禪宗의 空과 有의 변증관계를 통해 무학의 최고의 경계를 묘사하고 있다고 하였고, (『論金庸武學境界中的禪宗哲學』, 『時代文學』, 第05期, 2010.09.) 李如是 무협소설에서 무공은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구성요소인데, 무협소설 작가들은 이를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하였다. 또 무협소설 작가들은 무공의 묘사에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왔는데, 무공에서 武學으로, 그리고 武道로의 변화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였다.(『武功, 武學, 武道—論港臺武俠小說“武”之流變』, 『凱裏學院學報』, 第01期, 2013.02.)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묘사된 무공의 명칭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秦葉은 金庸의 무협소설에 묘사된 무공의 명칭들을 대상으로 하여 무공의 이름을 만드는 방법과 무공명칭의 구조, 그리고 명칭에 포함된 문화적 의미 등을 논의하였다.(『金庸小說中武功名稱詞語分析』, 『成都師範學院學報』, 第02期, 2016.02.) 또 黃燕은 金庸 무협소설의 무공의 명칭을 대상으로 하여 무공명칭의 실존성과 허구의 창작, 그리고 양자의 결합으로 창조된 무공의 명칭에 대해 논의하였고, (『金庸小說中武功名稱與文化意蘊』, 『語文建設』, 第20期, 2014.) 康楠은 金庸 무협소설에서 묘사된 무공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무공의 명칭과 진실성 여부에 관한 분류, 그리고 무공에 내포된 ‘儒佛道’ 등의 전통문화 정신에 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울러 무공을 사용한 인물들에 관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서사에 미친 영향에 관해 분석하였다.(『金庸武俠小說的武術描寫及其文化意蘊』, 蘭州理工大學 碩士論文, 2017.)

국내 또한 이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정동보는 「金庸의 武俠世界」에서 金庸 무협소설에서 묘사된 무공을 무공초석을 미화한 것과 전통문화 정신을 담은 것, 그리고 성격을 표현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써의 무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中國語文論譯叢刊』, 제6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0.12.) 또 우강식은 「문화적 공유점을 통해 본 中國現代武俠小說」에서 현대무협소설에서 詩·詞·書·棋 등을 무공의 창조에 운용하였다고 하였고, 이는 통속문학의 일종의 雅化작업이라 하였다.(『中國小說論叢』, 제24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6.09.)

이상 주요 선행연구의 성과들을 검토해본 결과, 연구자들은 무공은 단순히 俠의 行俠 수단으로써 강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며 서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는 대체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논의가 무공의 명칭과 피상적인 것에 치중되며, 세부적인 유형의 분류와 구체적인 분석, 그리고 무공이 서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요 논의의 대상을 현대무협소설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정신을 표현하였으며, 특히 무공의 창조와 묘사에 상당한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는金庸의 무협소설(金庸, 『金庸作品集』, 三聯書店, 1999.⁶⁾)을 중심으로 하였다.

2. 武功의 상징적 의미

1)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묘사된 무공들을 살펴보면, 太極拳을 비롯한 武當拳, 少林拳, 八卦刀法 등 30 여종 정도가 실제 존재하는 무공이었고,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무공은 작가에 의해 창작된 무공들이었다.⁷⁾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작가에 의해 창작된 무공인데, 『書劍恩仇錄』에서 묘사된 庖丁解牛掌과 『天龍八部』의 北冥神功, 『射雕英雄傳』의 逍遙遊掌 등은 『莊子』에서 무공의 이름을 빌렸고, 『射雕英雄傳』과 『神雕俠侶』, 『天龍八部』 등에서 洪七公과 郭靖, 蕭峰 등이 사용한 降龍十八掌의 초식과 『碧血劍』의 兩儀劍法 등은 『周易』에서 이름을 빌렸다. 또 『神雕俠侶』에서 楊過가 창안한 黯然銷魂掌은 江淹의 「別賦」의 시구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連城訣』에서 묘사된 唐詩劍法은 『唐詩三百首』에서 무공과 초식의 이름을 빌렸다. 또 『天龍八部』의 凌波微步는 曹植의 「洛神賦」의 시구에서 무공의 이름을 빌렸고, 『俠客行』에서 俠客島 절벽의 무공은 李白의 「俠客行」 시구를 빌려 무공과 초식의 이름으로 삼고 있다. 또 『神雕俠侶』에 묘사된 美女拳法은 고대 미녀에 관한 고사에서 초식의 이름을 빌렸다. 이처럼金庸은 무공과 초식을 창작하는 데 중국 전통 詩文을 비롯한 철학사상 등 다양한 방면의 자료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무공과 초식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작가에 의해 문화적 가공을 거쳐 묘사된 대부분의 무공과 초식은 현실 무예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협소설의 강호라는 허구의 공간에 존재하면서 문자를 통해서만 그것들의 형상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金庸은 자신이 창작한 무공과 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나의 소설에 있는 초식들은 대부분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낸 것들이다. 해당하는

논의는 세부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6) 이하金庸 작품의 원전 인용은 본 작품집을 참고함.

7) 向君, 『金庸小說武功名稱研究』, 西南大學 碩士論文, 2010, pp.13-16 참조. 黃燕, 「金庸小說中武功名稱與文化意蘊」, 『語文建設』, 第20期, 2014, pp.34-35 참조.

상황에서 인물이 어떤 동작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아서 고사성어 가운데서나 혹은 詩詞와 四書五經 가운데서 적합한 어휘들을 찾아 그 초식의 이름을 지었다. 때로 적합한 것을 찾지 못하면, 내가 직접 네 글자를 지어서 맞춰 넣었다. 결국, 그 초식의 이름을 형상화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었다. 중국 무술의 일반적인 초식은 언제나 형상화된 것인데, 당신은 그 이름에 근거하여 대체적인 동작을 상상해낼 수 있을 것이다.⁸⁾

곧 金庸은 묘사된 무공과 초식에 인물의 동작과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사성어와 고전 등에서 적합한 이름을 취하거나 혹은 직접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고 하였고, 독자들은 작가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가공한 무공과 초식의 명칭을 통해서 무공의 대략적인 형상을 상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면, 『周易』의 爻辭에서 이름을 빌린 降龍十八掌은 亢龍有悔, 飛龍在天, 見龍在田 등등의 초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이 일 초는 ‘亢龍有悔’라고 하는데, 장법의 핵심은 ‘亢’자에 있지 않고 ‘悔’자에 있다. …… 공격해 나가는 기운이 십이면 자신에게 남겨두는 기운은 오히려 이십이다”⁹⁾라고 초식의 요결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초식이 펼쳐지는 장면 또한 “숨이 콧 막히는 것을 느꼈고, 상대방의 장력이 세찬 파도가 마구 일어나는 듯했는데, 세찬 기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또 마치 무형의 높은 담장 하나가 자기 앞을 향해서 맹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¹⁰⁾는 추상적인 묘사만 전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렇게 문자를 통해 묘사된 무공의 대략적인 형상만 상상할 수 있다고 하겠다. 또 洪七公이 黃蓉에게 逍遙遊掌을 전수하는 장면은 두 사람이 마치 춤추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데,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하나가 왼쪽에서 일어나면, 다른 하나가 오른쪽에서 시작하고, 빙빙 돌기를 반복하는 것이 참으로 한 마리 玉燕과 大鷹이 엇치락뒤치락 날갯짓하며 춤추는 것과 같았다”¹¹⁾라고 무공을 펼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독자들은 무공의 구체적인 실체는 볼 수 없고, 단지 문화적 가공을 통해 묘사된 무공의 추상적인 형상만 체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梁守中이 “형세에 치중한 초식은 사실을 중시한 것으로 연마할 수 있지만, 뜻에

8) 我的小說裏面的招式，大多數是我自己想出來的，看看當時角色需要一個什麼樣的動作，就在成語裏面，或者詩詞與四書五經裏面，找一個適合的字彙來做那個招式的名字。有時找不到適合的，就自己作四個字配上去。總之那招式的名字，必須形象化，就可以了。中國武術一般的招式，總是形象化的，你根據那名字，可以大致把動作想象出來。翁靈文 等著，『金庸茶館』三，「金庸暢敘平生的著作」，中國友誼出版公司，1998，p.158.

9) 這一招叫作‘亢龍有悔’，掌法的精要不在‘亢’字而在‘悔’字。……打出去的力道有十分，留在自身的力道卻還有二十分。『射雕英雄傳』，제12회，p.430.

10) 覺氣息室滯，對方掌力竟如怒潮狂湧，勢不可當，又如是一堵無形的高牆，向自己身前疾衝。『天龍八部』，제41회，p.1607.

11) 兩人並肩而立，一個左起，一個右始，回旋往復，真似一只玉燕，一只大鷹翩翩飛舞一般。『射雕英雄傳』，제12회，p.432.

치중한 초식은 허상을 강조한 것으로 마음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말로는 전할 수 없고 대부분은 연마할 길이 없는 것이다”¹²⁾라고 한 것처럼, 허상을 강조한 무공과 초식들은 단지 그 명칭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실제 연마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金庸이 묘사한 대부분의 무공과 초식은 이미 작가에 의해 문화적인 가공을 거친 문인화 된 무공과 초식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처럼 허상을 강조한 무공과 초식은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작가가 붙인 무공과 초식의 이름을 통해서 그 형상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협소설은 무술을 가르치는 무예 교본이 아니고 읽히기 위해 창작된 문학작품임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이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겠고, 작가의 이러한 과장을 곁들인 문화적 가공은 예술적 차원에서 충분히 수긍될 수 있다고 하겠다.

2) 개성화한 무공

앞서 살펴본 것처럼, 金庸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의 소설에 묘사된 무공과 초식을 만들어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묘사된 무공들은 임의대로 인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성격이나 혹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소설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위력을 달리하는 무공이 묘사되고 있다. 예컨대, 『鴛鴦刀』에서 묘사된 夫妻刀法을 살펴보면, “이 도법은 원래 옛날 금실 좋은 부부가 만들어 낸 것인데, 두 사람은 서로 떨어지지 않았고, 마음이 잘 통하였었다. 쌍도를 펼쳐 보일 때는 또한 서로를 보호했다”¹³⁾고 설명하고 있다. 곧 夫妻刀法의 핵심은 부부가 서로를 아끼면서 보호한다는 것에 있는데, 부부가 각기 전혀 다른 도법을 배워 실전에서 서로를 보호하는 가운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에서 이 도법은 평소 원수처럼 지내던 林玉龍, 任飛燕 부부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이다. 이 부부는 실전에서 夫妻刀法을 몇 초식만 펼쳐도 서로를 타하기만 할 뿐 적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지 못했고, 자연히 도법이 가진 본래의 위력은 전혀 발휘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夫妻刀法은 강적을 만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袁冠南과 蕭中慧 두 연인에게 전수되고 비로소 본래의 위력을 되찾게 된다.

12) 梁守中, 『武俠小說話古今』,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中華書局(香港), 1992, p.49.

13) 這路刀法原是古代一對恩愛夫婦所創, 兩人形影不離, 心心相印, 雙刀施展之時, 也是互相回護. 『鴛鴦刀』, p.270.

원앙 쌍도가 연합하여 夫妻刀法을 펼치니 과연 그 위력을 당할 자가 없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어느 한 곳을 공격하면, 그곳에는 侍衛나 鏢師가 상처 입고 있었다. 60路的 도법을 반도 펼치지 않았는데, 습격해 온 적들은 잇달아 문을 박차고 도망쳤다.¹⁴⁾

林·任 부부에게서는 전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던 무공이 袁·蕭에 이르러서는 상대방 도법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전체 도법은 빈틈없이 완벽해졌다는 것이다. 또 『神雕俠侶』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黯然銷魂掌이란 무공이 묘사되고 있다. 이 무공은 楊過가 小龍女와의 이별의 고통을 자신이 연마했던 무공들과 융합하여 만들어낸 장법이었다. 이 장법의 특징은 이별의 고통이 무공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에 있는데, 楊過가 小龍女와 재회하면서 장법의 위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사라지자 무공의 위력도 동시에 상실되어 버린다. 그 뒤 다시 小龍女가 위험에 처하자 또다시 이별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공의 위력도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하게 된다. 하지만 이별의 고통을 알지 못하던 周伯通은 비록 이 무공을 전수하였지만, 무공이 지닌 이치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장법의 위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처럼 작가는 무공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처한 상황에 따라 무공의 위력도 달라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金庸은 또 인물의 이름과 취향 등을 고려하여 무공을 사용하는 병기도 그에 맞추어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소 서법을 좋아했던 朱子柳는 붓을 들면 “서법 가운데 點穴이 있고, 點穴 가운데 서법이 있으며, 참으로 필력이 굳세고도 힘 있었으며, 맹렬하고 날카로웠다”¹⁵⁾라고 하며, 一陽指와 서법을 하나로 융합하여 인물의 취향과의 조화를 고려한 무공이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으로 묘사된 무공의 안배는 金庸의 소설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서법을 좋아하는 禿筆翁, 張三豐, 張翠山 등에게 붓과 서법은 그들의 병기이자 무공과 초식이 되었으며, 또 음악을 좋아하는 黃鐘公은 비파를, 바둑을 좋아하는 木桑과 黑白子是 바둑판과 바둑돌이 사용하는 병기가 되었다. 그리고 南海鱷神은 악어를 상징하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악어 모양을 한 鱷嘴剪과 鱷尾鞭을 병기로 사용하게 하였고, 앞서 언급한 黃鐘公을 비롯한 黑白子, 禿筆翁, 丹青生 등의 의형제는 이름에 각기 琴棋書畫를 상징하는 것이 나타나고 그에 맞는 무공과 병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金庸은 또 무공의 성격과 이를 사용하는 인물의 성격과도 조화를 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남성을 먼저 제거해야만 무공을 익힐 수 있다는 辟邪劍法은 권력에

14) 鴛鴦雙刀聯手，一使開夫妻刀法，果真是威不可當，兩人並肩打到哪裏，哪裏便有侍衛或是鏢師受傷，六十路刀法沒使得一半，來襲的敵人已紛紛奪門而逃。『鴛鴦刀』，p.281.

15) 書法之中有點穴，點穴之中有書法，當真是銀鉤鐵劃，勁峭凌厲。『神雕俠侶』，제12회，p.444.

대한 욕망으로 인성을 상실한 嶽不群과 東方不敗, 그리고 복수를 위해 인성을 상실한 林平之 등이 이 무공을 습득하도록 하여 인물의 성격과 무공이 지닌 음험한 성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또 간결하면서 강건하고, 그러면서도 기교가 거의 없는 성격을 지닌 降龍十八掌은 비록 총명함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진 않지만, “다른 사람이 하루를 연마하면, 나는 십 일을 연마한다”¹⁶⁾는 성실함과 우직한 성격을 지닌 郭靖과 소탈한 성격에 영웅적 기개를 지닌 蕭峰에게 안배하여 무공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또 『射雕英雄傳』에 묘사된 雙手互搏은 周伯通이 桃花島의 동굴에 15년간 갇혀 지내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낸 무공으로 양손이 각기 다른 무공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무공이었다. 단순하고 순박한 심성을 지닌 郭靖과 小龍女 등은 어린이 장난 같은 이 무공을 쉽게 배울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잔피가 많고 영민한 黃蓉은 어떻게 해도 이 무공을 배울 수가 없었다. 곧 무공의 성격을 통해 이를 접하는 인물의 성격도 아울러 드러낸 묘사라고 할 수 있다. 또 『鹿鼎記』에서 韋小寶는 소설의 서사를 이끄는 중심인물로 비록 강호에서 陳近南, 九難 등 많은 고수를 사부로 삼고 무공을 전수하였지만, 게으른 성격으로 인해 제대로 무공을 익히지 못했다. 이런 韋小寶에게 九難은 “너는 네 몸에 지닌 기예가 하나도 없으니 이후 위험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내 하는 수 없이 너에게 도망치는 비법들을 가르쳐 줘야겠다”¹⁷⁾라고 하며, 경공술인 神行百變 몇 초식을 전수했다. 무공을 배울 자질은 물론 의지조차 없었으며, 또 곤란한 상황에 부딪치면 항상 빠져나갈 것을 먼저 궁리했던 韋小寶에게 안전하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공술은 그에게 있어 강호 생존을 위해 더없이 필요했던 무공의 안배였다고 할 수 있다.

3) 武學思想

金庸은 중국 전통의 詩詞와 철학사상 등에서 다양한 무공과 초식을 만들어내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공한 무공의 요지, 혹은 연마과정에 관한 묘사를 통해 자신의 무학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金庸의 무학사상은 무공의 발전과정에서 無의 경지를 강조하는 것과 무공수련 과정에서 悟를 강조하는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¹⁸⁾

『笑傲江湖』에서 風清揚은 令狐冲에게 獨孤九劍을 전수하며 무공의 발전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6) 人家練一朝, 我就練十天. 『射雕英雄傳』, 제12회, p.430.

17) 你沒一門傍身之技, 日後遇到危難, 如何得了? 我只好教你一些逃跑的法門. 『鹿鼎記』, 제34회, p.1325.

18) 唐黎標, 앞의 논문, p.11.

실제 필요에 근거해 배우고 융통성 있게 펼치는 것은 제일 첫걸음에 불과하다. 손을 쓸 때 초식이 없다면, 비로소 진정한 고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너는 ‘각 초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적은 깨뜨릴 방법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반쯤밖에 못 맞춘 것이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초식이 없어야 한다. 너의 검초가 제아무리 자연스럽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흔적을 찾을 수 있지만 하다면, 적은 틈 탈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근본적으로 초식이 없다면, 적이 어떻게 너의 초식을 깨뜨릴 수 있겠느냐?¹⁹⁾

무공을 배워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펼치는 것이 입문단계라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융합의 단계는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이라 하겠고, 근본적으로 초식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단계는 무공발전 과정의 최고의 경지임을 말하고 있다. 無의 경지에 이른 무공, 곧 초식이 없다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초식 또한 자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金庸이 추구하는 무학의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無의 경지를 강조하는 무공의 묘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倚天屠龍記』에서 張三豐은 張無忌에게 太極劍을 전수하며 초식을 깨끗하게 잊을 것을 요구하였고, 張無忌는 초식을 모두 잊고 난 이후 비로소 太極劍의 진정한 의미를 체득할 수 있었다.²⁰⁾ 또 『射雕英雄傳』에서 묘사된 무공비급 『九陰真經』의 첫머리에는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 때문에 虛는 實을 이기고, 부족함은 남음을 이긴다”²¹⁾라고 무공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無의 경지를 중시하는 金庸의 무학사상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작가의 이러한 무학사상은 獨孤求敗가 강호에서 걸어왔던 일대기를 설명한 劍冢의 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곧 劍冢에는 강하고 사나움(凌厲剛猛)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부드러움(軟)의 경지로, 그리고 다시 날을 세우지 않음(無鋒)의 경지로 발전했고, “40세 이후에는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 草木竹石을 모두 검으로 삼을 수 있었고, 이로부터 수련을 거듭하여 점차 無劍이 有劍을 이기는 경지에 도달하였다”²²⁾고 설명하고 있다. 無劍이 有劍을 이기는 경지, 곧 병기와 초식에 의지하는 有招와 有劍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無招와 無劍의 경지로 나아간다는 것으로, 이는 金庸 무협소설 전체를 관통

19) 活學活使, 只是第一步. 要做到出手無招, 那才真是踏入了高手的境界. 你說‘各招渾成, 敵人便無法可破’, 這句話還只說對了一小半. 不是‘渾成’, 而是根本無招. 你的劍招使得再渾成, 只要有跡可尋, 敵人便有隙可乘. 但如你根本并無招式, 敵人如何來破你的招式? 『笑傲江湖』, 제10회, p.372.

20) 『倚天屠龍記』, 제24회, pp.929-930 참조.

21) 天之道, 損有餘而補不足, 是故虛勝實, 不足勝有餘. 『射雕英雄傳』, 제18회, p.680.

22) 四十歲後, 不滯於物, 草木竹石均可爲劍. 自此精修, 漸進於無劍勝有劍之境. 『神雕俠侶』, 제26회, p.969.

하는 무학사상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金庸은 무공의 발전과정에서 ‘無’의 경지를 중시함과 동시에 무공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悟’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倚天屠龍記』에서 武當派의 탄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루는 한가롭게 산속을 거닐다가 고개 들어 떠다니는 구름을 보고, 고개 숙여 흐르는 물을 내려다보고 張君寶는 깨닫는 바가 있는 듯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칠일 밤낮을 고심하다가 돌연 이치를 환하게 깨닫게 되었다. 무공에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압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고는 저절로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웃음을 지었다.²³⁾

무공의 기초가 거의 없었던 張君寶가 武當派의 시조 張三豐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九陽真經』에 담긴 무학의 이치를 홀연히 깨닫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것이었다. 곧 ‘悟’의 과정을 거쳐 고수가 되었다는 것인데, 무공을 연마하는 데 ‘깨달음(悟)’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결국 그 무공의 진정한 위력을 습득하여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風清揚은 令狐沖에게 獨孤九劍을 전수하며 검법의 “要旨는 悟자 하나에 있는 것이지, 절대 억지로 기억하는 것에 있지 않다”²⁴⁾라며 깨달음의 과정을 강조하였고, 洪七公 또한 降龍十八掌의 亢龍有悔를 전수하며 “네가 어느 날 ‘悔’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이 초식의 삼 할 정도는 익힌 셈이 된다.”²⁵⁾라고 무공수련 과정에서 ‘悟’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또 陳家洛이 『莊子』의 庖丁解牛 고사에서 우연히 깨달음을 얻어 庖丁解牛掌을 창조한 것 또한 모두 무공수련 과정에서 悟의 과정을 중시한 작가의 상징적인 안배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무공의 기초가 미약했던 張三豐과 令狐沖 등이 강호의 중심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無와 悟의 형식으로 표현된 무학사상은 단기간에 무공의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무학이라는 것은 佛家の 禪宗과 마찬가지로 십 년 동안 고된 수련을 하는 것이 하룻밤에 문득 진리를 터득한 것만 못할지도 모른다”²⁶⁾라는 것처럼, 俠이 강호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무공을 연마해야 하는 시간적인 제약에 따른 문제도 동시에 해소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3) 某一日在山間閒遊，仰望浮雲，俯視流水，張君寶若有所悟，在洞中苦思七日七夜，猛地裏豁然貫通，領會了武功中以柔克剛的至理，忍不住仰天長笑。『倚天屠龍記』，제2회，p.68.

24) 要旨是在一個‘悟’字，絕不在死記硬記。『笑傲江湖』，제10회，p.389.

25) 哪一天你領會到了這‘悔’的味道，這一招就算是學會了三成。『射雕英雄傳』，제18회，p.680.

26) 武學猶如佛家的禪宗，十年苦參，說不定還不及一夕頓悟。『俠客行』，제20회，p.590.

金庸은 이렇게 자신이 가공한 무공에 無와 悟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문자에 의해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던 무공을 문화 예술적으로 읽고 감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서사에 미친 영향

1) 주제의식의 표현

무협소설에서 소설의 주제의식은 주로 정의를 펼치는 俠의 행위를 통해 표현되며, 이때 俠의 행위는 대부분 무공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金庸의 무협소설 또한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 무공은 俠이 강호에서 정의를 펼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무공 자체는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 이외에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폭력적인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金庸은 무공의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을 순화하기 위해서 무공수련 과정에서 먼저 심성의 정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승은 말했다. “본 파의 무공은 달마노조로부터 전해진 것이요. 불문의 제자가 무공을 익히는 것은 바로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데 있고, 佛法을 수호하고 魔를 제압하는 데 있소. 어떤 무공을 연마하든지 간에 언제나 마음에 자비로움과 어질고 착한 생각이 있어야 하오. 만약 佛學을 기초로 삼지 않고 무공을 연마한다면, 반드시 자기의 몸을 해치게 될 것이요.”²⁷⁾

비록 불가의 관점에서 무공수련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비심을 갖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무공의 공격적인 성격을 융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무공을 연마하는 목적으로 전체 강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다. 강호에서 생존을 위해 무공을 연마하고, 또 보다 강한 무공을 익히고자 다투는 것은 강호인들이 지닌 일반적인 본성이라 하겠지만, 金庸은 강호인들이 단순하게 “武”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하겠다.

무공 자체에는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지만, 金庸은 무공을 연마하는 목적을 통해

27) 那老僧道: “本派武功傳自達摩老祖. 佛門子弟學武, 乃在強身健體, 護法伏魔. 修習任何武功之時, 總是心存慈悲仁善之念. 倘若不以佛學爲基, 則練武之時, 必定傷及自身.” 『天龍八部』, 제43회, p.1683.

선과 악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무공을 할 줄 몰라도 사람을 죽일 수 있으며, 무공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다”²⁸⁾라고 하였고, 또 무공을 하는 자가 “선을 행하면 무공이 강할수록 더욱 선해지고, 악행을 저지르면 무공이 강할수록 더욱 악해진다”²⁹⁾라고 하였다. 곧 무공은 사용하는 자의 성품과 행위방식에 따라 선과 악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俠에게는 무공연마와 더불어 무공의 사용에 있어도 엄격한 강호의 도덕 규범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袁承志가 무공을 배우기 전 “伏虎掌法을 연마한 이후에 절대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무고한 사람을 상해하지 않겠습니다”³⁰⁾라는 맹세를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무공을 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무공을 배우는 목적을 俠義精神의 실천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洪七公은 강호에서 악행을 일삼는 裘千仞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다! 이 늙은 거지가 일생 죽인 사람이 이백 서른한 명이다. 그 이백 서른한 명은 하나같이 모두 악당이였다. 탐관오리나 악질도호들이 아니면, 매국노들이거나 배은 망덕한 무뢰배였다. 이 늙은 거지가 먹고 마시는 것은 탐하지만, 평생 선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인 일이 없다. 裘千仞, 네놈이 이백 서른두 번째 사람이다!”³¹⁾

洪七公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하였지만, 소설에서 그를 살인자라고 비난하는 이는 없었으며, 강호인 대부분은 도리어 그를 俠士라고 칭송하고 있다. 그의 행위가 악을 징벌하고 정의를 펼치는 俠義精神에 근거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에서 『飛狐外傳』에서 胡斐가 鳳天南을 죽여 鍾阿四의 원한을 갚아준 것이라든지, 『天龍八部』에서 虛竹이 강호에서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인 丁春秋를 生死符를 사용해서 제압한 행위 등이 폭력적이라는 비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또 반대로 嶽不群, 歐陽鋒 등이 비록 강한 무공을 지니고 있었지만, 俠士로 칭송되지 않은 것은 무공을 사용하며 俠義精神에 기반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협소설은 어떤 의미에서 무공을 사용해 타인의 생명을 상해하는 행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문학 장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무고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악을 징벌한다는 俠義精神에 근간을 둔 엄격한 강호의 도덕적 규범을 통해 무협소설 장르가 지닌 폭력적인 성격을 완화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²⁾

28) 不會武功, 也能殺人. 會了武功, 也未必殺人. 『天龍八部』, 제8회, p.296.

29) 行善則武功愈強愈善, 肆惡則愈強愈惡. 『射雕英雄傳』, 제40회, p.1406.

30) 學會了伏虎掌法之後, 決不敢欺壓良善, 傷害無辜. 『碧血劍』, 제2회, p.45.

31) “不錯. 老叫化一生殺過二百三十一人, 這二百三十一人個個都是惡徒, 若非貪官污吏·土豪惡霸, 就是大奸巨惡·負義薄幸之輩. 老叫化貪飲食, 可是生平從來沒殺過一個好人. 裘千仞, 你是第二百三十二人!” 『射雕英雄傳』, 제39회, p.1397.

2) 무공비급과 병기를 통한 서사 진행

강호에 특별한 내력을 지닌 병기나 절세 무공의 비밀을 담은 무공비급의 등장은 언제나 무협소설의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金庸 또한 이러한 제재들을 통해 강호의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며 서사를 진행하였다. “무예를 배우는 사람은 무학의奇遇를 보면 자기가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이치는 절대 없다. 실령父子, 夫婦, 師弟, 兄弟 또는 가까운 친척이거나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연마할 따름이다”³²⁾는 말처럼, 더욱 강한 무공을 바라는 것은 강호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지닌 욕망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특이한 능력과 내력을 지닌 무공비급과 병기들은 강한 무공을 습득하여 강호를 행보하는 과정에서 보다 안전함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강호인들이 이를 쟁탈하고자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고, 나아가 이들의 출현은 곧 자연스럽게 강호의 긴장과 갈등을 촉발한다는 것이다.³⁴⁾

『倚天屠龍記』의 서사는 ‘屠龍刀’³⁵⁾라는 병기의 출현과 함께 긴장과 갈등의 서사가 시작된다. 강호에 소문으로만 존재하던屠龍刀가 출현하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해 강호인들은 다툼을 벌인다. 강호인들은屠龍刀를 “무림의至尊屠龍 寶도, 천하를 호령하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도다. 倚天이 나오지 않으면, 누가 맞서 싸우겠는가?”³⁶⁾라며 이를 신성시했고, 무림지존이 된다는 보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웠다. 武當派를 비롯한 天鷹教와 少林派, 峨嵋派 등 소설에 묘사된 대부분의 강호문파가屠龍刀를 중심으로 한 분쟁에 간여하였다. 분쟁의 과정에서 俞岱岩은 폐인이 되었고, 謝遜은 두 눈을 실명했으며, 張翠山과 殷素素 역시 이 일이 원인이 되어 자결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 또 『鴛鴦刀』에서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 병기가 묘사되는데, 소설은 “칼에는 무림의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얻는 자는 천하에 적수가 없게 된다”³⁷⁾는 전설을 지닌 ‘鴛鴦刀’를 중심으로 소설의 전체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

32) 陳平原은 俠客들의 살인행위가 충분히 무공의 道德化 과정을 거쳤기에 소설에서 수용된다고 하였다. 陳平原, 앞의 책, p.129 참조.

33) 學武之人見到武學奇書, 決無自己不學而傳給旁人之理, 就算是父子·夫妻·師徒·兄弟·至親至愛之人, 也不過是共同修習. 『笑傲江湖』, 제35회, pp.1354-1355.

34) 林保淳은 무공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호의 각종 풍파를 두고 무협소설의 화근이라고까지 하였다. 「武林秘籍: 武俠小說“情節模式”論之一」, 『西南大學學報』, 第01期, 2006.01, p.49.

35) 倚天劍과 屠龍刀는 楊過가 가져온 獨孤求敗의 玄鐵重劍을 녹여 만든 것으로 그 안에는 각기 무공비급인 『九陰真經』과 병서인 『武穆遺書』를 넣어두었다.

36) 武林之尊, 寶刀屠龍, 號令天下, 莫敢不從, 倚天不出, 誰與爭鋒. 『倚天屠龍記』, 제3회, p.113.

37) 刀中藏著武林的大秘密, 得之者無敵於天下. 『鴛鴦刀』, p.236.

설에서는 威信鏢局 周威信을 비롯한 太岳四俠, 蕭中慧, 袁冠南, 林玉龍, 任飛燕, 그리고 황궁의 卓天雄 등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鴛鴦刀를 차지하기 위해 벌인 암투가 묘사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金庸은 지니면 천하무적이 된다는 鴛鴦刀를 쟁탈하려 진행되는 서사에 독특한 내력을 지닌 무공인 夫妻刀法을 결부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夫妻刀法의 내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도법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지니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는 아주 쉽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도리어 극히 어렵고, 적의 몸에 칼로 벤 곳은 모두 급소가 아니었다. 생각건대, 당시 이 도법을 만든 부부 쌍협은 마음이 어질고 선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 때문에 매 일 초가 극히 매서운 도법 가운데 모두 적에게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이다.³⁸⁾

夫妻刀法은 위력적이지만, 어질고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 무공의 목적이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양숙처럼 지내던 林·任 부부가 鴛鴦刀를 들고 무공을 펼칠 때와 서로 아끼는 마음을 지닌 袁·蕭 두 사람이 무공을 펼칠 때의 위력은 전혀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金庸은 이처럼 선한 마음이 바탕이 된 夫妻刀法과 또 지닌 자는 천하무적이 된다는 鴛鴦刀를 하나로 연결하여 소설의 주제의식을 말하고 있다.

鴛刀의 칼날 위에 仁者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鴛刀 위에는 無敵이라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仁者無敵!” 이것이 바로 천하에 적수가 없다는 큰 비밀인 것이다.³⁹⁾

특별한 내력을 지닌 병기는 분명 이를 가진 자의 무공의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 강호인들 역시 병기의 능력을 빌어 天下無敵을 꿈꾸며 鴛鴦刀를 다투었지만, 정작 작가가 鴛鴦刀를 통해 제시한 결말은 ‘仁者無敵’이었다. 天下無敵은 곧 仁者無敵이라는 주제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무공연마의 목적을 통해 언급한 선한 마음으로 무공의 공격적인 성격을 융화시켜야 한다는 주제의식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병기와 마찬가지로 무공비급 또한 강한 무공을 습득하고자 하

38) 這路刀法卻有一樁特異之處，傷人甚易，殺人卻是極難，敵人身上中刀的所在全非要害，想是當年創制這路刀法的夫妻雙俠心地仁善，不願傷人性命，因此每一招極厲害的刀法之中，都爲敵人留下了餘地。『鴛鴦刀』，p.281.

39) 鴛刀的刀刃上刻著仁者，鴛刀上刻著無敵兩字。“仁者無敵”！這便是無敵於天下的大秘密。『鴛鴦刀』，p.284.

는 강호인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주요 통로가 된다. 金庸은 그의 소설에서 『九陰眞經』을 비롯한 『九陽眞經』, 『辟邪劍譜』, 『六脈神劍』, 『北冥神功』, 『連城劍譜』, 『神照經』 등등 다량의 무공비급을 묘사하며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공비급에 관한 묘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하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병기와 마찬가지로 강호에 출현하면, 동시에 이를 차지하고자 촉발되는 긴장과 갈등의 서사이며, 다른 하나는 무공비급을 통해 俠이 단기간에 강한 무공을 습득한다는 설정이다.

『九陰眞經』⁴⁰⁾은 『射雕英雄傳』의 주요 갈등을 촉발하며 전체 서사를 이끄는 요소라 할 수 있고, 이 무공비급은 후속작인 『神雕俠侶』와 『倚天屠龍記』의 서사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周伯通은 『九陰眞經』이 세상에 나온 이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해 어찌 된 일인지 이 책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난 것이야. 천하에 무공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연히 모두 그것을 얻고자 했지. 모두 서로 뺏고 빼앗으며, 엉망진창이 되었지. 내 사형이 말하길, 이 경문을 쟁탈하기 위해서 희생된 영웅호걸이 모두 이미 백여 명이 넘는다고 했어.⁴¹⁾

수백 명의 강호인이 이 비급을 두고 희생을 감수할 만큼 무공비급은 강호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九陰眞經』을 두고 王重陽을 비롯한 黃藥師, 歐陽鋒, 段智興, 洪七公 등 당대의 고수들은 華山에서 論劍을 벌였고, 黃藥師의 제자 梅超風은 이를 훔쳐 강호에 나와 악행을 저지르며 각종 서사에 간여하게 된다. 또 周伯通은 이 비급으로 인해 십여 년간 桃花島의 동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郭靖은 여기서 그를 만나 그와 의형제를 맺고 『九陰眞經』의 무공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射雕英雄傳』의 크고 작은 고사들은 모두 『九陰眞經』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笑傲江湖』에서의 묘사된 『辟邪劍譜』 역시 이를 쟁탈하기 위해서 벌어진 각종 암투와 분쟁이 소설의 주요 서사라 할 수 있다. 소설은 福威鏢局이 무공비급으로 인해 멸문당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余滄海를 비롯한 木高峰, 嶽不群 등 수많은 강호인이 무공비급을 차지하고자 암투를 벌이는 가운데 서로 상해하는 것이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비급의 무공을 익힌 東方不敗를 비롯한 岳不群, 林平之 등은 모두 비급의 무공을 바탕으로 日月神教의 교주가 되거나 五嶽劍派의 맹주가 되었지만, 이후 차례로 人性을 상실하며 비극적인 결말을 보게 된다. 또 『天龍八部』에서 묘

40)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고, 각기 내공 심법과 무공초식이 기록되어 있다. 北宋 시기 黃裳이 지었다고 하며, 南宋 시기 강호에 나타났다고 한다.

41) 那一年不知怎样, 此书忽在世间出现, 天下学武之人自然个个都想得到, 大家你抢我夺, 一塌里糊涂. 我师哥说, 为了争夺这部经文而丧命的英雄好汉, 前前后后已有一百多人. 『射雕英雄傳』, 제16회, p.610.

사된 大理 天龍寺의 六脈神劍의 검보 또한 소설의 서사와 깊이 관여되는데, 吐蕃 승려 鳩摩智는 이 검보를 얻고자 강호에 나왔고, 곳곳에 적지 않은 풍파를 일으킨다. 段譽 역시 이 무공비급으로 인해 鳩摩智에 사로잡혀 자의 반 타의 반 강호를 행보하게 된다. 段譽는 王語嫣를 만나 그녀에 구애하며 더욱 깊이 강호의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비롯해 蕭峰을 만나 그와 의형제를 맺고 蕭峰의 서사를 소설의 중심에 끌어내는 매개체가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서사는 모두 六脈神劍의 검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공비급은 無와 悟의 무학사상을 통해 강호의 중심인물이 무공을 습득하는 시간적인 제약을 해소하였던 것처럼, 강한 무공을 습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소설적 장치로 활용된다.⁴²⁾ 앞서 언급한 것처럼, 『射雕英雄傳』에서 郭靖은 桃花島의 동굴에서 周伯通을 만나 며칠을 지내며 『九陰真經』의 무공을 습득하게 된다. 이후 동굴을 나온 郭靖은 “10여 일 만나지 못하는 동안 신의 가르침이라도 갑자기 받았단 말인가?”⁴³⁾라는 감탄이 있을 정도로 확연한 무공의 변화가 있게 되는데, 당시 최고 고수라고 할 수 있는 歐陽鋒과도 대등하게 무공을 겨룰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강호의 중심인물로서 역학을 하게 된다. 곧 무공비급을 통해 단기간에 무공의 수준 향상을 꾀한 작가의 안배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무공의 기초가 전혀 없던 段譽는 無量玉碧의 石洞에서 逍遙派의 무공비급인 北冥神功을 우연히 습득하여 연마하였고, 그는 北冥神功의 무공으로 다양한 고수들의 내공을 흡수하여 단기간에 강한 내공을 지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六脈神劍의 무공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 『連城訣』에서 狄雲은 오른쪽 손가락이 모두 잘리고, 비파끝이 뚫리는 등 무공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丁典이 전수한 내공심법 『神照經』을 연마하고 血刀僧에게 학대당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혔던 혈맥이 뚫려 강한 내공을 지니게 된다. 狄雲은 이렇게 형성된 『神照經』의 내공을 바탕으로 『血刀經』의 무공 등 강한 무공을 습득하여 복수를 완성하게 된다.

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병기와 무공비급은 더욱 강한 무공을 얻고자 하는 강호인들의 욕망과 맞물려 강호에 긴장과 갈등을 조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며, 동시에 俠이 강호에서 정의를 펼치는 데 필요한 무공을 완성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적인 장애를 해소하는 소설적 장치로 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林保淳, 앞의 논문, pp.47-48 참조.

43) 十餘日不見, 難道他忽然得了神授天傳. 『射雕英雄傳』, 제18회, pp.666-667.

4. 나가는 말

이상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무공이 어떠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문화적으로 가공되었는지, 그리고 작가는 이렇게 가공된 무공과 병기, 무공비급 등을 서사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물론 金庸의 무협소설에서 묘사된 무공과 초식이 방대해서 일일이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무공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金庸은 인물의 형상과 무공을 사용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통의 詩文과 철학사상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과 초식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문화적 가공을 거친 무공과 초식은 비록 문자의 형태로 독자들에게 추상적인 형상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예술적 감흥과 여운을 남겨주고 있다. 金庸은 또 자신이 가공한 무공의 요지를 설명하며 無의 경지를 제시하였고, 수련방법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무학사상은 俠이 강호에서 장시간 무공수련을 하는 것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특별한 능력을 지닌 병기와 무공비급은 대체로 소설에 묘사된 여타 다른 무공에 비해 습득한 자의 무공의 능력을 월등히 향상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기와 무공비급 역시 무학사상과 같이 습득한 인물의 무공을 수위를 단시간에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이들이 강호에 출현하게 되면 강호에는 자연스럽게 긴장과 갈등의 국면이 형성되게 되며, 소설의 서사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문학작품이 그러하지만, 특히 무협소설은 대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俠이 가공된 무공을 사용해 강호에 정의를 펼친다는 무협소설 장르의 특성에 비춰보면, 무협소설은 묘사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자칫 폭력적인 성향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金庸은 가공한 무공에 다양한 형식으로 문화 예술적인 의미를 담았고, 또 이러한 무공을 수련하거나 사용할 때 俠義精神을 강조하면서 제기된 우려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하겠다. 무공의 창조와 묘사의 다채로움은 俠의 형상을 묘사하는 것과 더불어 무협소설이 폭넓게 읽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武”를 창조하고 묘사한 것이 성공적이냐의 여부는 무협소설 작품의 정채로움과 그렇지 않음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현대무협소설 작가들이 무협소설 장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창작 태도를 보이고 창작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우강식, 「문화적 공유점을 통해 본 中國現代武俠小說」, 『中國小說論叢』, 제24집, 2006.09.
- 정동보, 「金庸의 武俠世界」, 『中國語文論譯叢刊』, 제6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00.12.
- 康 楠, 『金庸武俠小說的武術描寫及其文化意蘊』, 蘭州理工大學 碩士論文, 2017.
- 金 庸, 『金庸作品集』, 三聯書店, 1999.
- 唐黎標, 「金庸筆下的武學思想」, 『精武』, 第08期, 2006.08, p.11.
- 梁守中, 『武俠小說話古今』, 江蘇古籍出版社, 中華書局(香港), 1992, p.49.
- 劉會鳳, 「金庸武學的教育理念－淺析楊過的成長過程」, 『佳木斯教育學院學報』, 第04期, 2009.10.
- 李 如, 「武功, 武學, 武道－論港臺武俠小說“武”之流變」, 『凱裏學院學報』, 第01期, 2013.02.
- 李洪武, 「論金庸武學境界中的禪宗哲學」, 『時代文學』, 第05期, 2010.09.
- 林保淳, 「武林秘籍: 武俠小說“情節模式”論之一」, 『西南大學學報』, 第01期, 2006.01, pp.47-49.
- 傅國湧, 『金庸傳』, 「金庸梁羽生合論」,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03, p.267.
- 嚴家炎, 『金庸小說論稿』, 北京大學出版社, 1999.
- 翁靈文 等著, 『金庸茶館』三, 「金庸暢敘平生的著作」, 中國友誼出版公司, 1998, p.158.
- 張從容, 「武俠之“武”的文化淵源與審美意蘊」, 『遼寧師範大學學報』, 第03期, 2007.05.
- 鄭春元, 『俠客史』, 上海文藝出版社, 1999, p.183.
- 陳 墨, 『金庸小說與中國文化』, 百花洲文藝出版社, 1995, p.190.
- 『金庸小說之武學』, 百花洲文藝出版社, 1996.
- 秦 葉, 「金庸小說中武功名稱詞語分析」, 『成都師範學院學報』, 第02期, 2016.02.
- 陳 特, 「金庸武學工夫論」, 『蘇州教育學院學報』, 第02期, 2018.04.
- 陳平原, 『千古文人俠客夢』, 人民文學出版社, 1992, p.129.
- 向 君, 『金庸小說武功名稱研究』, 西南大學 碩士論文, 2010, pp.13-16.
- 黃 燕, 「金庸小說中武功名稱與文化意蘊」, 『語文建設』, 第20期, 2014, pp.34-35.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金庸, 武侠小说, 武功, 象征的意义, 侠义精神				
	영문	Jin Yong, Kung-fu Novels, Wugong(martial arts), Symbolic Meanings, Chivalrous Spirit				
<div><div>A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s and the Influence of the Narrative of Wugong in Jin Yong's Kung-fu Novels</div><div>Woo, Kang-Sig</div><div><p>This study surveys the symbolic meanings of Wugong(martial arts), and effects on narratives which are the main structural elements of Kung-fu novels of Jin Yong.</p><p>Jin Yong made use of various materials such as poems and philosophical thoughts and made martial arts and movements in martial arts through cultural processing. Wugong and movements in martial arts in them through cultural processing are handed to readers in letter types, but gives the feeling and aftertaste of art. Jin Yong explained essentials of martial arts he made and presented the level of nothing. In field training he emphasized the processing of cognition. And he requested that every martial arts are based on chivalrous spirit in use of martial arts. Weapons and secret highest level martial atrs are far beyond those which are described in other kung-fu novels. So if those who have the above things are in Jiang hu(the world of the swords men), naturally tension and conflict in Jiang hu are formed and narratives of novels are progressed focusing on them.</p></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우강식 / 禹康植 / Woo,Kang-Sig				
	소 속	慶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Em@il	wookangsig@daum.net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18	심 사 일	2020.11.28	게재확정일	2020.12.15